

## 綠茶, 癌종양 성장 억제

日 과학자들 EGCG분리 성공

日本의 과학자들은 최근 綠茶가 암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東京에 위치한 日本국립암연구소의 후지키 히로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후생성이 발표한 통계를 분석, 일본 중부 시즈오카 縣 주민들이 다른 지방의 주민들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히 낮다는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즈오카 縣은 綠茶의 주요 생산지로써 이곳 주민들은 다량의 綠茶를 마시고 있다.

후지키 박사팀은 綠茶에 암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모종의 성분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에 착수, 綠茶잎으로부터 에피갈로카테킨갈라테(EGCG)라는 물질을 분리해 내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생쥐의 등피부에 보통세포를 비활동적인 종양세포로 변형시키는 화학물질을 투여한뒤 생쥐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후 연구팀은 6개월 동안 한 그룹의 생쥐들에게는 종양을 성장시키는 물질

을 1주일에 두번씩 투여했으며 나머지 그룹의 생쥐들에게는 종양성장 촉진제와 綠茶에서 분리해낸 EGCG를 동시에 투여했다.

그 결과 종양성장 촉진제만을 투여한 그룹의 생쥐들은 53%가 종양이 성장한 반면 종양성장촉진제와 EGCG를 함께 투여한 그룹의 생쥐들은 단지 13%만이 종양이 성장한 사실을 얻어냈다.

즉 일반적으로 종양성장 촉진제는 생쥐의 피부세포의 接受體에 달라붙어 일반세포를 종양세포로 변형시키지만 EGCG는 接受體의 성질을 바꾸어 종양성장 촉진제의 활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후지키 박사팀은 이같은 생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綠茶에 포함돼 있는 EGCG가 인간의 종양 특히 食道癌, 胃癌, 腸癌 등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日本人들은 綠茶를 자주 마심으로써 하루 평균 1g의 EGCG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